

안양시청불자회 38명 '초보딱지' 떼던 날

“배웠다가 보다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안양불교대 야간기초교리반서 6개월간 ‘학구열’ ‘체계적으로 배우니 재미...직장생활도 원만’

“불교란 인과의 법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내가 지은 업이 과를 만들고, 연에 의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즉 ‘자비’를 행함으로써 인과를 깨우치라 말씀하신 겁니다.”

11월 17일 저녁 7시,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동국대 불교학과 권기중 교수가 진행하는 ‘불교학개론’ 강의 중간 중간 “아~”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온다. 이들은 바로 안양시청 공무원 불자회원들. 6월 ‘불교 초자배기’를 자청하며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학장 현희)에 입학한 38명은 어느덧 기초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하지만 권 교수님과 현호 스님의 강의를 들으며, 더 열심히 배우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동안 불자라고 말하면서도 주위에 분들이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거든요.” (김명자·46)

“불교에 대해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사찰

예절도요. 가장 많이 변한 게요? 주말에 사찰을 찾으면, 주위 분들에게 젊은 이렇게 하고, 스님의 법문이 이런 말씀이다 하고 훈수(?) 들 수 있게 됐어요.” (김현숙·48)

그동안 불교공부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이들은 마지막까지 강의내용 하나라도 놓칠 새라 칠판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실 이른 아침에 출근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직장불자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불교대학을 찾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안양시청 불자회원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 없이 한달에 한두 번 법회를 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회원들이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퇴근 후 불교공부를 하자고 발심했고, 현호 스님(안양 지장선원 주지)의 도움으로 야간 기초교리반에 입학했다.

그 동안의 목마를 때문일까, 전체 회원 60명 중 절반이 입학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또 교리반 진행 중에도 몇몇 회원들이 속속 입학했다. 강의가 있는 수요일이면

마음이 들러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회원부터 과중한 업무와 출장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날이면, 다음날 동료회원에게 밥을 사주며 강의내용을 전해 듣는다는 열성회원들까지. 이 같은 회원들의 열정은 불교공부라는 소기의 목적 외에도 회원들 간의 친목 강화와 직장 내 불자회의 입지강화에도 크게 한몫했다.

“이곳에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춰 남을 배려하니 직장생활이 원만해지고, 가정도 저절로 화목해지더라고요.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혜덕(55)

“오늘 교수님께서 ‘무명’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모르면 계속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직장 내에서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권익철(52)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한달에 한차례 진행되는 법회와 사찰순례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직장불자들이 많은



안양지장선원 불교대학 야간기초교리반 마지막 수업. 안양시청 불자회원들이 강의내용을 하나라도 놓칠 새라 칠판과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기초교리반의 원만회향을 자축하며 또 다른 정진을 위한 발심을 세우고 있는 회원들.

요즘, 안양시청불자회는 깨달음을 위한 끊임없는 정진으로 다른 직장불자회의 모범이 되고 있었다.

“직장불자회가 친목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자는 물론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이들이 모여 끊임없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안양시청불자회는 한 달간의 방학 후, 내년 1월부터 경전반을 통해 불교공부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글·사진/안양=김은경 기자

우리불자회는요

제주불교산악회

자연은 범당 삼는 산악인들의 모임. 안녕하시요. 제주불교산악회입니다.

우리 불교회는 1999년 6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해 지난 11월 6일 창립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제주도 곳곳에 불씨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매주 셋째 주 일요일 가까운 오름(작은 화산봉우리)을 올라 산상법회를 열고, 전·하반기 사찰순례법회 및 사찰순례를 진행하며 순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회는 법회 이외에도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가전제품고치기, 집안정리하기 등의 노력봉사도 하고, 장애인복지관 등을 찾아 생활필수품과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제주시청이 운영하는 시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어르신들께 무료점심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재정적인 지원보다 주위의 따뜻한



제주불교산악회 회원들이 10월 24일 제주 시라악을 올라 산상법회를 보는 모습.

자연이 범당... 산상법회 또 다른 포교 불우이웃 찾아 가전제품 고쳐 주기도

우리 불교회의 핵심적인 활동인 산상법회는 특히 일반인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제주불교산악회’라고 크게 적힌 45인승 대형버스를 타고 제주도 360여 곳의 오름에 올라 목적을 두들이며 법회를 보는 모습. 낯선 풍경이지만, 주말 혹은 휴가를 맞아 제주도 오름에 오른 이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무슨 단체냐고 묻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나 문의를 해가며 불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법회가 시작되면, 두 손을 고이 합장하고 법회에 참가해 목적을 치고 반야심경을 외는 회원들의 목청과 활동에 힘을 실읍니다. 오름 위에서 외는 반야심경이 메아리를 치며 산천 곳곳에 울려 퍼질 때의 감동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관심과 정성어린 손길 하나가 더 위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겨울이 되면 국립공원인 한라산을 찾아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펼치고 있습니다. 배추, 콩 등을 구입해 야생동물들의 겨울나기를 도우며, 자연과 동·생물을 보존하기 위해 시작한 행사입니다.

식량을 이고 한라산을 오르는 일이 고되기는 하지만, 우리 산악인 불교회의 특성을 살리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불교회는 앞으로 제주지역 내 산악인들은 물론, 전국 산악인들과 연합해 다양한 활동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동반산행 등을 개최해 외국 불교산악회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넓은 세상에 불교메아리를 전할 예정입니다.

■김만국 회장

11월 27일은 ‘사회봉사의 날’ 공물련



로동 '브니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한국공무원봉사연합회(회장 김세호·사진)가 11월 27일을 ‘사회봉사의 날’로 정하고 서울·경기 지역 회원 50여명과 함께 서울 구로동 ‘브니엘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펼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정신을 사회 곳곳에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청소와 빨래 등 노력봉사와 함께 ‘장애우 친구들과의 나들이’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브니엘의 집’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임을 감안, 회원들로부터 쌀과 생필품 등을 보시 받아 전달할 계획이다. (02)739-1080

무료 중국어 강좌 열여 경찰청불교회



불교회 회원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어 강좌를 통해

경찰청내 직원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김남규 선생의 강의로 진행된다. 강의교재는 <베이지중국어 40(기초합본)>가 사용되며, 경찰청 직원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남규 씨는 외국어대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지난 33년간 KBS에서 중국어 아나운서로 활동한 심신 있는 불자이다. (02)313-0815

갑신년 冬安居 결재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는 야산 청운큰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수행 정진하실 갑신년 동안거 결재 동참 대중을 모십니다.

- 결 재 : 불기 2548년 11월 26일(음 10월 15일)
- 해 제 : 불기 2549년 2월 23일(음 1월 15일)
- 입방자격 : 참선수행에 원을 세운 남녀, 누구나
- 신청기간 : 불기 2548년 10월 부터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전화접수
- 접수문의 : 취운선원 중무소 055)383-6479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96

※ 자세한 내용은 취운선원 중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재기간 매주 특별 참선 법문이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충북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은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리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케이트칠을 했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co.kr E-MAIL : sungjongs@hotmail.com